

사람과 가축의 나이 호칭

조 명 래

나이란 사람이나 동식물이 나서 자란 햇수를 뜻하며, 같은 말에는 연기(年記)와 연령(年齡)이, 늙임 말에는 연세(年歲), 연치(年齒)와 춘추(春秋)가, 준 말에는 「나」가 있으며, 지긋한 나이를 홀하게 이르는 속된말에는 나잇살(낫살)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임금의 나이를 높이어 말할 때, 보력(寶曆)·보령(寶齡)·보산(寶算)이라 하고, 중(스님)이 된 뒤로부터 치는 나이를 법랍(法臘)이라 하며, 죽은이의 한평생 살아서 누린 나이를 향년(享年)·몰년(歿<沒>年)·졸년(卒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이를 사실보다 속여 올리는 것을 가년(加年), 가령(加齡)이라 하고, 남에게 자기의 나이를 겸손하게 이르는 것을 마치(馬齒)·마령(馬齡)·견마지치(犬馬之齒)·견마지년(犬馬之年)이라 하며, 같은 연령을 또래·동갑(同甲)·동치(同齒)·동경(同庚)·갑장(甲長)·연갑(年甲)·연배(年輩)라 한다.

누구나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나이를 먹다’, ‘나이가 들다’, ‘나이가 차다’고들 달리 이른다. 그러면 나이를 어떻게 셀 것인가? 통상 우리는 우리말 수사(數詞) 밑엔 「살」을, 한자어 수사 아래엔 「세(歲)」를 달아 나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사와 나이를 세는 단위인 「살·세」를 사용하지 않고, 달리 나이를 이르는 말들이 사람에게 자주 쓰이고(표 1),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어사전 속에 살아있는 우리 고유의 말로, 독

특하게 마소(개)의 나이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기에 소개하는 바이다(표 2).

태고적부터 인간은 불로장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인류의 평균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연장되었다. 물론 이것은 문명발달의 소산인 의식주의 향상과 과학적 의술발전이 이루어 낸 것이지만, 우리 수의사들의 몫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인간이 타고난 수명(壽命)·천수(天壽)·천명(天命)·본명(本命)은 얼마인가? 옛날에는 회갑(回甲)을 맞은 사람도 드물었다고 했다. 그러나 요즘은 장수(長壽)·노수(老壽)·대수(大壽)·영수(永壽)·하수(遐壽)·하령(遐齡)·학수(鶴壽)·향수(享壽)한 것을 축하하여 베푸는 잔치의 하나인 고희연(古稀宴)은 말할 것도 없이, 희수연(喜壽宴)에 미수연(米壽宴)까지 치르는 사람이 흔할 뿐 아니라, 90~100세 이상 장수한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원래 장수(長壽)를 셋으로 구분한 삼수(三壽)는 하수(下壽: 60~79세), 중수(中壽: 80~99세), 상수(上壽: 100세 이상)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면 즉 늙은 나이인 노년(老年)·장년(長年)·만연(晩年)·모년(暮年)·고령(高齡)·고년(高年)·고수(高壽)·노령(老齡)·연만(年滿)·년晩)·퇴령(頽齡)에 이르면 늙은이로서 노인(老人)·백수(白叟)·숙기(宿耆)로 불린다. 여기서 우리는 늙은 남자를 노수(老叟)·노옹(老翁)·노야(老爺)·노한(老漢)으로, 늙은 여자를 노온(老嫗)·노파(老婆)로 다르게 호칭한다.

* 수원 갈촌동물병원

누구나 태어나면 유아(幼兒)·영아(嬰兒)-유아(幼兒)-유치(幼稚)-유소년(幼少年)-아동-소년-소녀-청소년-성년(成年)·정년(丁年)-청년(20~30세)-성년(盛年)-청장년(靑壯年)-장년(30세 전후)-중년(中年: 40세 전후)-초로기(初老期: 45~50세)-중노기(中老期: 50~60세)-기년·기로(耆年·耆老: 60~70세)-서로·용로(庶老·隆老: 70~80세 이상)-모기(耄期: 80~100세)에 이르러 이승에서 사라지는 것이 천수(天數)요 천운(天運)이다. 다시 말하면 핏덩이로 태어나 젖먹이-아기-아이-어린이-애젊은이-젊은이-중늙은이-늙은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인간이 불로장생하거나 영원히 사는 만세(萬歲)의 염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종교에서는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촌 어느 곳이든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은 생신을 축하하는 판수(瓣壽)와 함께 잔치상을 받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절대적 균주적인 북한의 김일성 주석도 생각밖으로 짧은 83세에 죽은 것을 보면 역시 인명은 재천인 모양이다.

과연 인간은 몇살까지 살 수 있을까? 또한 가축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어떤 과학자가 말하길 인간의 수명은 200세 이상 가능하다고 하였다. 가축중 개도 30년 가까이 살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과학적인 장수연한 계산보다 다음과 같은 전설(前說)이 오히려 마음에 닿는 회답같이 보인다.

태초에 옥황상제께서 사람과 소, 개, 원숭이에게 똑같이 30년씩 살게 했더니, 한창 재미있을 30세에 죽는 것이 원통하고 애통해 하는 인간이 있는 반면에, 죽도록 일만해야 하는 소와 밤낮으로 집만 지켜야 하는 개 그리고 철장에 갇혀 재롱만 부려야 하는 원숭이는 10년 이상 사는 것이 정말 지겹다고 원성과 탄원을 함께 하였다 한다. 그래서 옥제(玉帝)께서 소, 개, 원숭이는 10년씩만 살게 하고, 인간에게 소, 개, 원숭이가 반환한 20년씩의 삶을 차례로 물려주었기에, 사람의 수명이 90년이 되었다는 전언이 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인생 첫 30년은 참다운 인간의 삶을, 그다음 20년씩은 소, 개, 원숭이와 같은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와같은 전설로 생각한다면 인간의 수명은 90세로, 진짜 나이대접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천수를 누린 90세 부터가 아닌가 짐작되며, 적어도 인간의 평균수명 만큼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해도 90세가 넘지 않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가축의 평균수명도 수명재인(獸命在人)·축명재인(畜命在人)으로 볼 때, 10년을 넘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가축의 1년이 사람의 9년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어떤 책에서는 나이비교에서 개의 1년은 사람의 7년과 같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말할 때 태어나자마자 곧 한 살로 치나, 서구쪽에서는 출생후 만 1년이 되어야 비로소 한 살로 친다. 사람의 평균임신기간 263일에, 수정능력을 보유할 때까지의 정자성장기간 60여일과 수태가 가능할 때까지의 난자생성기간을 합친다면 거의 일년이 되므로, 출생하자마자 곧 한 살로 치는 우리의 나이 세는 법이 서구쪽보다 얼마나 더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이며 또한 생명존중사상까지 내포된 훌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마·소·개의 나이에서는 우리나라도 만(滿)으로 친다. 그것은 정신적 면을 중요시하는 인간에 비해, 육체적인 면에 치우치는 가축의 나이는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육체성장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닌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싶다.

사람나이의 정확성은 족보에 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감령(加減齡)이 되어 실제나이와 틀리기 때문이다. 요즘은 외모로 상대방의 나이를 짐작하기란 무척 어려워졌다. 머리털이 세거나 벗어진 것은 머리털의 염색과 이식으로, 눈가와 입가 등 얼굴의 주름살은 성형술로 위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젊어지려고 애를 써도, 늙은이의 나이는 자식을 보아 알 수 있고, 40세가 넘은 남자는 호랑이눈썹이 반드시 생기며, 상대방의 피부상태(목)와 목소리를 잠깐만 분석한다면 쉽게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했수나 결혼기념일명칭(표 3)을 물어보기도 알 수 있다.

가축중 소는 뿔의 나이테(연륜: 年輪)로 나이를 추측할 수 있으나 다른 가축의 나이는 짐작키 어렵

다. 뼈의 발달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골화연령(骨化年齡)을 실시하면 간단히 알아낼 수 있으나 비실용적이다. 그러므로 나이를 뜻하는 연치의 치(齒)자와 연령의 령(齡)자가 암시하듯이 인수(人獸)공통으로 이[齒]의 마모상태에 따라 나이를 판정하는 것이 가장 쉬우며 현실적이다.

사람의 나이호칭(표 1)에서 사람의 나이를 달리 이르는 말을 종합해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1) 셈본에 따른 나이호칭에는 2×8의 이팔청춘(16세), 파과의 과(瓜)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八이 되는 데서 여자는 8+8의 파과(16세), 남자는 8×8의 파과(64세), 3×7의 삼칠(21세) 그리고 100의 절반인 반백(50세)이 있다.

2) 열 순(旬)자가 사용된 나이호칭에는 삼순(30세), 사순(40세), 육순(60세), 칠순(70세) 및 팔순

표 1. 사람의 나이호칭

나이	사람의 나이를 달리 이르는 말들
7	학령(學齡: 만 6세), 취학연령.
15	책임연령(형법상 만 14세), 지학(志學)
16	성정(成丁: 남자), 파과(破瓜: 여자), 이팔청춘(二八青春)
17	결혼연령(민법상 만 16세: 여자).
19	방년·방령(芳年·芳齡: 여자), 결혼연령(민법상 만 18세: 남자).
20	관세(冠歲), 약관(弱冠).
21	삼칠(三七), 정년·성년(丁年·成年: 만20세)
30	삼순(三旬), 이립(而立)?
32	이모(二毛)=이모지년(二毛之年).
40	사순(四旬), 불혹(不惑).
50	반백(半百), 애년(艾年), 지명(知命).
51	망륙(望六).
60	육순(六旬), 이순(耳順).
61	망칠(望七), 화년(華年), 화갑(華甲), 갑년(甲年), 환갑(還甲), 회갑(回甲), 주갑(周甲).
62	진갑(進甲).
64	파과(破瓜: 남자).
70	칠순(七旬), 칠칠(七耋), 종심(從心), 고희(古稀), 희년(稀年), 희수(稀壽).
71	망팔(望八).
77	희수(喜壽).
80	팔순(八旬), 팔칠(八耋), 산수(傘壽)?
81	망구(望九)=망구순(望九旬).
88	미수(米壽).
90	구순(九旬)? 구질(九秩), 졸수(卒壽)?
91	망백(望百).
99	백수(白壽).
100	기이(期頤)=기이지수(期頤之壽).

<참고> 동아 새국어 사전(1994).

표 2. 마소(馬)의 나이호칭

나이	호칭분류	~듬	~롭	~름	~습	-
	호칭모음					
1	하름*, 한습	-	-	하름	한습	-
2	이듬, 두습	이듬	-	-	두습	-
3	사름	-	-	사름	-	-
4	나름*	-	-	나름	-	-
5	다습	-	-	-	다습	-
6	여습	-	-	-	여습	-
7	이름	-	이름	-	-	-
8	여듬	여듬	-	-	-	-
9	구름, 아습	-	-	구름	아습	-
10	열름, 담불	-	-	열름	-	담불

<참고> 동야새국어사전(1994).

* 개의 나이에 사용된 호칭임.

표 3. 결혼(結婚)기념일 명칭

주년	명 칭
1	지(紙)혼식 ^{1,2,3)}
2	고(藥)혼식 ^{1,2)}
3	과(菓)혼식 ^{1,2)}
4	초(草)혼식 ¹⁾ , 혁(革)혼식 ²⁾
5	목(木)혼식 ^{1,2,3)}
7	화(花)혼식 ^{1,2)}
10	석(錫)혼식 ^{1,2,3)}
12	마(麻)혼식 ¹⁾ , 마(縑)혼식 ²⁾
15	동(銅)혼식 ^{1,2,3)}
20	도(陶)혼식 ^{1,2,3)}
25	은(銀)혼식 ^{1,2,3)}
30	진주(眞珠)혼식 ^{1,2,3)} , 상아(象牙)혼식 ³⁾
35	산호(珊瑚)혼식 ^{1,2,3)} , 비취(翡翠)혼식 ³⁾
40	녹옥(綠玉)혼식 ¹⁾ , 모직(毛織)혼식 ³⁾
45	홍옥(紅玉)혼식 ^{1,2)} , 견(絹)혼식 ³⁾
50	금(金)혼식 ^{1,2,3)}
60	금강석(金剛石)혼식 ¹⁾ , 금강(金剛)혼식 ²⁾ , 다이아몬드혼식 ³⁾ (미국은 75주년)
(75)	

<참고> 1) 스피치대백과사전(1976). 언어 문화사.

2) 영업일기장(1993). (주)대성미생물연구소.

3) 동야새국어사전(1994). 동아출판사.

(80세)은 있으나 오순과 구순은 없다. 다만 국어사전에는 망구(81세)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망구순(望九旬)이 있을 뿐이다.

3) 10년 연령의 범위로 다음 대(代)를 바라본다는 뜻의 망(望)자를 사용한 나이호칭에는 망륙(51세), 망칠(61세), 망팔(71세), 망구·망구순(81세) 그리고 망백(91세)이 있다.

4) 고전에서 유래된 나이호칭으로는 이립(30세), 불혹(40세), 이순(60세), 고희·종심(70세)이 있다. 이것은 공자의 논어 제 2편 위정(爲政)에 실려있는 「내가 열 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고, 서른에 뜻을 세우고, 마흔에 모든 사리에 의혹하지 아니하고, 쉰에는 천명을 알고, 예순에는 모든 일을 들어 저절로 알게 되고, 일흔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좇아서 법규에 넘지 아니하였다(吾十有五而志干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는 말씀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이립(30세)의 이(而)자는 빼는 것이 옳을 듯 하며, 15세와 50세를 뜻하는 나이호칭이 지학과 지명으로 약칭화하므로 석 자(字)로 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회년·회수·고희(70세)는 두보(杜甫)의 시 곡강(曲江)에 나오는 「사람의 나이 일흔은 예로부터 드문 일(人生七十古來稀)」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5) [질]자를 사용한 나이호칭에는 칠질(70세), 팔질(80세), 구질(90세)이 있으나, 칠질과 팔질에는 노인 질(耄)자를, 구질에서는 차례 질(秩)자를 다르게 쓰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졸수(90세)의 「卒」자가 수명을 다한다는 뜻의 ‘죽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전설(前說)의 내용과 같이 90세부터는 새로운 인생 즉, 제 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으로 차례 질자를 붙였는지도 모르겠다.

6) 한자(漢字)의 모양에서 유래된 나이호칭에는 「葦」자를 풀어 쓰면 「十」자 여섯과 「一」자 한 개가 나오는 데서 화년·화갑(61세), 「喜」자의 초서체가 「七十七」과 비슷한 데서 희수(77세), 「米」자를 풀면 「八十八」이 되는 데서 미수(88세) 그리고 「百」자에서 「一」를 빼면 「白」자가 되는 데서 붙여진 백수(99

세)가 있다. 그러나 졸수(90세)는 「卒」자의 약자가 「九」자로, 풀어 쓰면 「九十」이 되는 데서 일컬어지거나 국어사전에는 없으며, 산수(80세)는 우산 산(傘)자의 획수를 줄여 「傘」자로 쓰는 데서 여든 살을 뜻한다고 하나, 실제로 「傘」자를 풀었을 때 「八十」이 아닌 「人十」이 나올 뿐 아니라 옥편에도 그러한 약자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잘못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7) 머리털이 세는 것으로 표시된 나이호칭으로는, 센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는 나이란 뜻의 이모(32세)와 약쭉처럼 머리털이 희어진다는 뜻으로 사용된 애년(50세)이 있다.

8) 글자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나이로는 학교에 갈 나이인 학령·취학연령(7세), 형법상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나이인 책임연령(15세), 성인이 이루어지는 남자의 나이인 성정(16세), 민법상 결혼할 자격이 있는 결혼연령(남: 19세, 여: 17세), 꽃다운 여자의 나이인 방년·방령(19세), 갓을 쓸 수 있는 나이인 관세·약관(20세), 어른이 되는 나이인 성년·정년(21)이 있다.

또한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를 순차로 배합하여 육십 가지로 배열한 순서인 육십갑자(六十甲子)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의 환갑·회갑·주갑·갑년(61세), 다시 육십갑자로 나아가는 뜻의 진갑(62세)과 턱이 흔들릴 정도로 장수한다는 뜻의 기이·기이지수(100세)가 있다.

9) [표 1]에도 있지만 특정한 나이를 지정하지 않고, 어느 나이의 미만, 이상 그리고 안팎을 뜻하는 호칭도 있다. 즉, 만 20세가 되지 못한 나이를 말하는 미성년(未成年)·미정년(未丁年), 지난날 열 다섯살 이상의 장정(壯丁)을 이르던 말인 남정(男丁), 15세 이상의 소년인 성동(成童), 예순이 넘은 나이인 기년(耆年)·기로(耆老), 지난날 서민으로서 일흔 살이 넘은 노인을 이르던 말인 서로(庶老), 10대 후반의 젊은이를 말하는 청소년(靑少年) 그리고 10세 안팎의 어린이를 뜻하는 충년(冲年)·척동(尺童)·소동(小童), 스무 살 안팎의 젊은 나이인 청춘(靑春), 30세 안팎의 장년(壯年), 마흔 살 안팎의

중년(中年)·조백(早白), 여자의 스무 살 안팎의 꽃다운 나이인 방년(芳年)·방령(芳齡), 젊은 여자의 꽃다운 나이 곧 20세 안팎의 여자의 나이를 뜻하는 묘령(妙齡)·묘년(妙年), 70·80세 이상의 노인을 뜻하는 융로(隆老)와 병으로 고로름거리면서도 여든까지 삶을 이르나 예상보다 오래 산다는 뜻의 「고로름팔십」이 있다.

10) 기타 나이의 범위를 나타내는 말에는 청춘기(14·15세~22·23세), 노동생산연령(14~65세), 청년(青年), 초로기(初老期), 중노기(中老期), 기년(耆年)·기로(耆老), 모기(耄期), 삼수(三壽)의 하수(下壽), 중수(中壽), 상수(上壽)가 있다.

우리는 출생후 여러가지 형태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다. 즉, 돌잔치를 비롯하여, 부모님이 베풀어 주는 생일파티와 자력으로 차린 진수성찬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생일을 기리는 생일잔치 그리고 자식과 자손이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고 온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생신잔치를 갖게 된다.

생일잔치를 다른 말로 수연(晬宴)·호연(弧宴)이라고 하며, 장수한 것을 축하해 주는 하수(賀壽)에 속하는 생일잔치를 수연(壽宴<筵·譙>)이라고 한다.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에는 환갑잔치·회갑연(回甲宴)·화연(花宴), 진갑잔치, 칠순잔치·고희연(古稀宴), 팔순잔치, 미수연(米壽宴) 등이 있다. 이때 자손들은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하면서 술잔을 올리는 헌수(獻壽)·상수(上壽)·칭상(稱觴)을 할 뿐 아니라, 눈썹이 다 셀 때까지 오래 오래 사시라는 뜻에서 부디 미수(眉壽)하소서 한다.

개인의 생일과 함께 성장후 혼인을 하면 부부의 생일인 결혼기념일이 생긴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60주년이 되면 즉, 결혼회갑년이 되면 자손들 앞에서 회혼례(回婚禮)를 성대히 치른다. 그러나 서구쪽에서는 [표 3]과 같이 결혼했수에 따라 각기 다른 결혼기념일의 명칭으로 결혼을 기리고 있다. 그들의 결혼기념행사의 내용은 견문이 없어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여행을 떠나거나 멋있는 곳에서 식사를 함께 할 것으로 짐작한다. 물론 부부간에 서로 기념품도 주고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결혼기념일에 한 끼의 식사로 끝내고 싶어하고, 기념품은 부담이 커 생략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원래 서구식 기념품은 결혼기념일 명칭이 뜻하는 대로 차츰 사랑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기념품으로 나아가므로, 열심히 살았다면 또한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할 마음이 있다면 전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결혼 1주년인 지혼식 때는 종이로 만든 물건으로, 2주년(짚), 3주년(과자), 4주년(풀), 5주년(나무), 7주년(꽃), 10주년(주석), 12주년(삼), 15주년(구리), 20주년(질그릇), 25주년(은), 30주년(진주·상아), 35주년(산호·비취), 40주년(에메랄드, 모직), 45주년(루비·비단), 50주년(금), 60주년(다이아몬드) 때엔 팔호안의 재료로 만든 기념품을 서로 주고 받으며, 결혼을 자축하고 진솔한 사랑을 굳게 다짐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처럼 만약 조혼(早婚)을 한다면 우리도 결혼 75주년을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기념일명칭표(표 3)에 나와있는 4주년의 혁(革)혼식과 12주년의 마(麻)혼식은 잘못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뜻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명칭들(30주년, 35주년, 40주년, 45주년)은 어느 것이 정확한지 또는 두개 다 통용되는 것인지는 저로선 알 수 없었다. 좌우간 우리 수의사들의 부부는 결혼기념일의 명칭대로 그때마다 조그만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아가페적이고도 에로스적이며 에피쿠로스적인 사랑이 넘칠 뿐 아니라, 사랑의 띠가 휴전선 철책같이 탄탄하게 영글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소(개)의 나이호칭(표 2)은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목장축주들에게 물어봐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우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중개인이 소의 고삐를 잡고 이를 들어내어 우리말 나이호칭으로 나이를 세는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데 말이다.

마소개의 나이호칭을 분류해보면 사물의 수를 세는 수사(셈씨) 즉, 한·하나, 두·둘(이), 서·석·세·셋(삼), 너·넉·네·넷, 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구), 열을 어간으로 삼거나 변형시

킨 다음, 접미사격인 「~듭, ~릅, ~릅, ~습」자를 달아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만 열살의 ‘담불’은 아주 특이하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담불의 또다른 뜻은 ①곡식이나 나무를 쌓아 올린 무더기, ②‘벼 백 섬’을 세는 단위라고만 되어 있다.

국어사전에는 마소개의 나이호칭이 모두 다 마소의 나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릅과 나릅」은 개에게도 사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소개의 나이호칭은 비단 마소개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네 발 가축 모두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런데 가축이 열 살 이상 되었을 때 어떻게 나이를 세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많은 조사와 함께 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우매한 생각으로 비춰볼 때, 전설(前說)에서 가축의 수명은 10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은 셀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열 살이 넘기 전에 도살하여 식용으로 이용했을 지도 모르며,

만약 열 살 이상인 가축이 있었다면, 아마도 ‘열 살이 넘었다.’고 하거나 ‘회갑이 지난 나이’로 호칭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과 가축의 나이호칭 및 결혼기념일명칭에 대해서, 관련된 많은 낱말들을 동원하여 알아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마소(개)의 나이호칭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줄 의무를 느껴야 하며, 사람의 나이호칭과 결혼기념일명칭에 따른 낱말과 뜻을 되새겨 수의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이끌어야겠다. 또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의 수의사 서식에서 동물의 표시-연령란에 우리말로 된 나이를 실제로 기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수의사의 나이 즉, 수의사가 된 뒤로부터 치는 나이를 수산(獸算)이나 수력(獸曆), 아니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있는 듯한 「곰닐, 힘써할」 동(働)자를 써서 동치(働齒)로 정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글을 쓴 저는 동치 스무 한 살입니다.